

# 올해의 단어, 정원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 백운동 원림 동주



백운동 원림에도 겨울이 왔다. 백운동 원림에는 취미선방, 수소실, 정선대 세 채의 초가집이 있는데 새 벗집으로 도톰하게 지붕을 덮으니 갈색의 지붕이 포근함을 주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보기 쉽지 않은 이엉잇기나 옹마람 엮는 모습을 내내 구경하거나 과정을 동영상에 담은 관광객들이 많았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훈수도 둔다. 시멘트 빌딩이나 아파트가 즐비한 도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벼를 재배하는 농촌에서조차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정취다. 자칫 이 아름다운 전통 풍습조차도 없어지거나 앓을까 걱정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겨울의 전령, 흰 눈이 소복이 내려 초가지붕은 이내 호백이 되었다.

봄, 여름, 가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온 원림의 식물들은 몸통까지 사그라져 흙이 되고 바위들도 시들어 주름이 쳐 간다. 갈색의 시간, 비움의 계절이다.

지나간 초목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 올해 가장 화려한 식물들의 향연이 벌어진 곳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 순천만 정원이다. 천 만 명 가까운 내장객을 기록했다고 하니 올해 대한민국의 가장 흥행한 도시라는 칭호와 찬사가 아깝지 않다. 철마다 피워낸 화려한 꽃들도 볼거리지만 도시가 정원이고 정원이 도시가 되고자 하는 발상도 좋았다. 특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지역은 우주적 관점이 반영된 전국으로 가는 길, 나선형 언덕(Snail Mound)과 호수였다. 찰스 쟁스(Charles Jncks)작품이다. 여러 번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

찰스 쟁스는 건축가였으나 그의 부인 매기 케스윅(Maggie Keswick)을 만나 본격적으로 정원설계를 하게 되었다.

매기 케스윅은 풍수의 개념을 전파하였던 동양 정원의 전문가로 <중국정원>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포트랙 하우스'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죽기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의 젠 형식, 불교, 도교등 동양정원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남편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은 아주 새로운 형태의 대지를 조성하고 정원을 만들었는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경에 접해 있는 포트랙 하우스라는 '우주적 사색의 정원'이다. 찰스 쟁스는 자연의 근본을 우주로 보았는데 블랙홀등 우주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물리학 이론에 매기 케스윅의 바람과 물에 의해서 지형적 특징이 에너지를 가진다는 중국의 정령신앙을 조화롭게 결합해서 세상에 없던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필자가 조경공부를 하면서 접한 마운드 앤 레이크(Mound and Lake) 나 블랙홀 테라스(Black hole Terrace) 지역을 보면 매기 케스윅의 풍수사상과 찰스 쟁스의 카오스이론이 접목되어 어떻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내는 감동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수 백년 이어 온 풍경식 전통 정원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찰스 쟁스는 '정원에서 식재가 중요시 되어 왔지만 정원의 출발점이 식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자연속에 과학, 인문학, 예술, 사회현상과 사상이 담기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몇 백 년 전 신선사상을 구현코자 조영한 백운동 원림과 맞닿아 있다.

울산 태화강에는 또 하나의 국가정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델란드 출신 세계적 정원디자이너 피터 아우돌프(Piter Oudolf)가 조성하고 있다. 아우돌프는 '도심속 하늘공원'이라는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디자인한 거장이다. 버려진 철길을 풀, 갈대, 야생화 가득한 산책로로 바꿨다. 매년 5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 몇 년 전 직접 걸어보니 원래 있었던 숲길처럼 자연스러웠다. 그가 아시아에서 첫 작품으로 오랜 동료 바트

후스(Bart Hoes)와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을 조성했다. 아우돌프는 화려한 꽃에 치중하던 전통 가드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고 사계절 내내 감상할 수 있고 식물의 탄생부터 성장과정, 쇠락과 죽음에 이르는 순환과 다양한 조화를 보여주는게 정원'이라고 말한다. 그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원의 유지보수다. 처음 울산시에서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을 때 항구적으로 유지보수가 담보될 것이 우선 조건이었다고 한다. 공공정원은 면적이 클수록 자원봉사자나 철저한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흉물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시카고 루리 가든이나 영국 위슬리 가든 같이 20여년이 지났지만 그가 조성했던 정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러 다닌다고 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영국 하우저 앤드 위스 갤러리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의외로 겨울이라고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쉽게 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꽃과 식물의 골격, 색감도 좋지만 생명의 마지막과 자연의 순환을 생각하게 하는 '갈색의 시간' '비움의 시간'이 영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에게서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정원에서는 일 년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러한 순환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것이다. 올 한 해 수많은 꽃들의 축제와 더불어 한국의 국가정원 1호 순천만 정원과 2호 울산 태화강정원의 조성국과 국민적 관심은 국내가 드닝의 인식과 산업의 협착한 울타리를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정원이 꽃과 식물의 진열 행사나 며칠간의 축제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가 되길 바란다. 조경분야(만드는 사람들)와 관광분야(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설계, 환경생태 분야, 농가등 연관 산업분야에 두루 성장의 기회와 모티브를 준 한 해였다. 그런 뜻에서 '정원'을 올해의 단어로 뽑아 본다.

## 社說

### 먹고사는 길 만드는게 지역소멸 막는다

#### 시·도지사 어제 송년사

올해 민선 8기 광주·전남 광역단체장의 송년사는 살기 좋은 광주·전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로 압축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에는)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광주를 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인공지능(AI)과 미래 차를 양 날개로 9대 산업을 키우고 도시 전체를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실증도시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 등 기존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앵커기업 5개, 혁신기업 200개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도 공급해 청년

과 신혼부부가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가정에는 넓은 전용면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시·도지사의 송년사에는 지역소멸을 막는데 초점을 두는 듯 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글로벌 관광을 내세워 지역 경제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각오가 대단하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지역사회에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광주·전남에 미래차·우주발사체 산단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민선 8기는 이제 1년을 향해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단체장과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광주·전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 지역발전의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2024년을 대비한다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그저 암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 미덥고 반가운 '나눔의 섬' 신안의 변화

#### 나눔리더 한달 새 56명 돌파

신안군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신안군은 이미 2021년부터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민공유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둔 신안군의 도전을 응원한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날 신안군청에서 새롭게 가입한 나눔리더 33명과 함께 두 번째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가졌다. '나눔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 기부 프로그램으로, 100만 원 이상 기부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날 나눔리더 가입식은 신안 나눔리더 1호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나눔리더 23명의 단체 가입식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이번에 33명이 신안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하면서 신안군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나눔리더 56인을 배출한 나눔의 섬으로 거듭났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미국 마이

크로소프트사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 2000년 빌앤멜린다 게이츠재단을 설립하고 의료, 공공도서관 건립 등에 30조 원을 기부하고 지금도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1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유산으로 3명의 자녀에게 100억 원 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봉사와 나눔에 초점을 맞춘 헌신하는 리더십의 전형이다. 헌신과 존경을 모토로 한 신안군의 나눔리더 여정도 비슷하다.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나눔의 정신은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신안군의 트레이드마크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생존전략이다. 지역공동체의 복지와 연대를 강화하려는 신안군의 노력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혁신적인 시도다. 주민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햇빛연금과 함께 지역 협동조합이 동참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신안의 도전이 미덥고 반갑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 서석대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1788~1860)가 2023년 말 한국에서 유명세를 끌고 있다.

교보문고가 8일 발표한 12월 첫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강용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종합 1위를 유지했다. 작가는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빌려 '인생이 고통임을 인정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가짜 행복 대신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는 고통을 겪어라'라는 조언을 한다.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쇼펜하우어의 '지금, 다시 쇼펜하우어'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1851년 출간)도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염세주의의 안경을 낀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베일 만치 날카로운 언어로 써내려간 저서들에 '인생은 고통'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이자, 만족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한 끝없는 고통에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또 인간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타인에게서 위안을 찾고자 하지만, 타인은 또 다른 아픔을 가져다줄 뿐이다. 즉, 인간은 가시 돌진 고슴도치처럼 타자들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인생 그리고 타인은 고통"이라 외치는 쇼펜하우어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성광'들에게 쇼펜하우어는 단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 철학자가 아니다. SNS나 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는 타인의 삶은 끝없는 비교를 불러와 자신의 삶을 비루해 보이게 만든다. 타인의 시선 대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불교의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는 도덕을 통한 해탈, 즉 동정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동정은 동고(同苦, Mitleid)로 번역되는데,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삶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이 현대에 던지는 울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적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세계는 자기 의지의 표상"이라고 밝혔다. 검은 토끼의 해가 저물고 청룡의 해가 떠오르길 기다리는 시점에서 다시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읊어본다. "나는 내 의지로 된다(Ich kann tun, was ich will)!" **양가람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